1960.10

《빨찌산 공작하는 아동 혁명 단원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10호 내용

당의 품속에서 동무들은 행복합니다

박 성 철

가슴에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활개치는 귀여운 소년단원 동무들! 금년에 우리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창건 열 다섯돐 (10월 10일)을 맞이 합니다.

동무들은 해방 후 당의 품 속에서 태여나 당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동무들입니다.

동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서러움도 모르고 자랐고 지주, 자본가놈들의 압박과 착취도 알지 못하고 해방 후 당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피여 난 꽃봉오리들입니다.

나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동무들을 볼때마다 나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이 회상되군합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나 내가 어렸을 때는 돈 많은 지주 집 자식이나 공부했지 우리 같이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은 공부를 할 념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소작 농민의 가정이였던 우리 집에서도 6 남매 중에 나 하나만이라도 공부시키자고 모두들 애썼지만 열 한 살이 되도록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보내자면 많은 입학금과 월사금을 내야 했는데 한 달 월사금이 쌀 대두 두 말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작 농민들이야 농사 지은 것을 지주놈에게 다 빼앗기고 먹을 것 조차 없는 형편인데 월사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했다가도 월사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쫓겨 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소작농의 아들이였던 나도 열 한 살이 되여서야 겨우 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월사금을 내지 못해 여러 번 학교에 가지 못하군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형님이 품 팔이를 해서 마련해 주군 했습니다. 겨우 소학교를 졸업하는 6년 동안에 나는 운동화 라군 한 켤레도 신어 본적이 없고 육상 선수이면서도 옷이 없어 경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어린 마음에 중학교에서 시험치는 광경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50 여 리를 걸어 중학교에까지 갔습니다. 시험 문제들을 보니까 만일 내가 시험을 친다면 100 점(5점)을 맞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더러 대리로 시험을 쳐 달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그 때 세월에는 돈이면 다였습니다. 락제생인 부자'집 아이들은 돈만 내면 중학교에도 가고 대학에도 갔습니다.

나는 혼자 중학교에 가지 못해 울고 울다가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 세상 왈칵 뒤집혔으면 시원하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동무들과 이야기한 때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어찌 이것이 나 하나만의 처지였겠습니까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 모두의 처지였습니다. 그후 나는 차차 우리 조국 땅에서 왜놈들을 몰아 내고 근로 인민들을 착취하는 지주 자본가놈들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래 나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항일 유격대에 들어 가서 오늘과 같은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항일 유격대원들은 오늘의 조국을 위해 즉 동무들에게 이 행복을 안겨 주기 위해 서슴치 않고 목숨을 바치였습니다.

오늘 동무들의 이 행복 속에는 항일 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동무들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누구나 다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나라에서는 학용품과 그리고 교복과 외투까지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당과 국가에서는 조국의 명승 고적지들에다 수 많은 야영소들을 건설해 주어 동무들이 마음껏 야영 생활을 즐기게 해주었고, 아동공원, 아동 극장, 영화관, 그리고 소년 궁전, 아동 백화점들이 날로 늘어 가지 않아요. 정말 로동당은 동무들을 위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더 많은 기술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대학을 세우게 함으로써 동무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학자로도 되고 기술자로도 되고 예술인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반부 소년들은 어떠합니까. 남반부 아이들은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나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일제 때 보다 더 비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남반부에는 배움은 고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소년들이 150 여만이나 되며 20여만의 전재 고아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놈들과 그의 앞잡이 놈들이 인민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반부 형편을 생각할 때 우리 당이 얼마나 고마우며 우리 당의 품 속이 얼마나 따뜻하며 행복한가를 우리는 더욱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우리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크나큰 행복을 느낄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행복을 안겨 주기 위해 15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일제와 싸운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혁명 투사들의 피어린 투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반드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당은 동무들이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지식 있고 참다운 조국의 훌륭한 건설자가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바라는 당의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쑤를 미워하고 당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씩씩한 혁명 투사로 자라 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의 본신 임무인 학과 학습을 충실히 하며 선진 과학 기술로 무장된 튼튼한 일'군이 되며,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조직이 주는 임무라면 끝까지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어린 붉은 전사로 조국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씩씩하게 준비합시다.

련시

로동당의 기'발 따라

리 효 운

만경대 언덕에서

흰 돛배 미끄러지는 저 강물
은금실 비단필 펼치였는가—
초가을 해'별 담뿍 받으며 받으며
소나무 우거진 강 기슭에 우리 왔다.

뭉게 구름 두둥실 넘나드는
언덕을 품어 안고 생각에 잠긴
만경대 깊은 여울 바라다 보면
이 가슴에 용솟음 친다. 수령님 말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분묘가 있는
나의 조국!
나는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리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시 이 강을 건너
돌아 오지 않으리라'》

그이가 싸워 이긴 슬기로운 조국땅—
조국의 넓디넓은 쪽빛 하늘에
행복을 노래하는 저 태양 웃는다.
건강하고 명랑한 부모 형제들,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즐기는
우리의 푸른 하늘 태양이 번쩍인다.

고압선 타고 전기 노래하고
소 양떼 구름 같이 흘러 가는
양덕 맹산 깊은 골짜기에서
황해에 흘러 드는 저 대동강이
인민의 사랑 민족의 존경 싣고
어루만지는 만경대 언덕에 앉으면
가슴은 끝 없이 끝없이 설레인다.

머슴의 아들로 태여 난 아버지에게
조국의 기름진 땅 논아 주고
푸른 조국의 대지 우에
사회주의 해'별을 비치여 준
수령님을 이 땅에 맞이한
위대한 해에 우리 태여나 자랐구나.

태양은 모든 것 생명에 부르니
곡식과 열매들 익어 간다.
날개 돋아 훨훨 날 것 같구나,
풍년 든 저 협동 벌 에돌아
해'별에 번쩍이는 저 학교 지붕 지나
조국의 대지 우를 날것만 같구나!

3천리 금수 강산 한 품에 안고
우리에게 배움의 밝은 창문 열어주며
이 기쁜 생활을 베풀어 주고
이 모든 맑은 노래 엮어 주는
3천만의 어머니— 당을 노래한다.

밝은 희망과 불굴의 의지
꽃봉오리 심장에 심어 주고
모든 것에 투쟁의 날개 주어
붉은 천리마로 나래치게 한
수령님과 당에 소년단의 노래 바친다.

구슬 같이 흩어지는 물결 스쳐

묻새들 노래하며 지평선에 사라진다.
무쇠 도가니 보다 뜨거운 정열
불 붙는 내 심장에 끓어 번지고
당을 따라 배우고 일하려는 맹세
내 가슴에 바다보다 깊으니……
수령님 손들어 가리키는
공산주의 지평선에 훨훨 날아간다.

조국의 노래'소리

동무들! 솔깃이 귀 기우려 보세요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장엄하게
밤이나 낮이나 들려 오는 소리—
조국 땅에서 울려 오는 저 노래 들으세요!

쇠물 끓어 번지는 불 도가니에
영영 안 꺼지는 불꽃 일구며
붉은 의지 달구어 구슬 땀 흘리는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 숨'소리—

아슬히 푸르른 논밭 마다에서
우르릉 들려 오는 뜨락또르 소리.

고개 수긴 주먹 같은 이삭들
풍년을 반기여 영그는 소리—

장백의 밀림 속 눈보라 헤치며
별같은 눈으로 밤 밝히며
혁명 투사들의 모범 배우는
학생들의 책장 번지는 소리—

소년단 기'발 앞 세우고 북 치며
행복한 웃음 소리 차고 넘친
번창한 거리를 대렬 지어 활개 치는
소년단원들의 우렁찬 발 자국 소리—

이 모든 가지가지 소리와 함께
미국 놈들 뒤 통수에 불 벼락을 내리고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붉은 심장의 고동 소리 들려 와요!

그래요! 이 각가지 노래 넘친 땅에서
우리는 혁명의 전사로 배우며 자라지요.
어떠한 원쑤도 건드리지 못하는
조국을 우리는 건설하며 지키겠어요.

천리마야 어서가자

은빛 갈기 날리며 어서 가자,
천리 만리 이 땅에 태여나
큰 은빛 날개 휘저으며
천리마야, 조국땅 우를 어서 달리자!

흰 구름 쉬여 지나 가는
우리 학교 지붕 우 아슬히
해'별에 번쩍이는 사회주의 봉우리에
쏜 살 같이 달려 가자 날아가자.

붉은 룡마에 우리도 탔다.
당과 수령님께 충실한 마음 담아
항상 붉은 넥타이 날리며 날리며
공산주의 지평선에 우리도 가자

수령님 하신 말씀 가슴에 아로새겨
형제들과 친구의 손 잡고 날아 가자
당이 가르친 투쟁의 노래 부르며
원쑤에겐 불벼락 내리며 달려가자

피눈물 찬 불행한 가슴 헤치고
밥과 옷 달라 학교와 자유 달라
우리를 부르는 구원의 목소리
남녘땅 형제들의 목소리 들려 온다.

미국놈 나가라 싸움의 홰'불 든
영웅 형제들의 숲 같은 주먹,
천리마의 말 발굽 소리에 귀 기우리는
새'별 같은 눈들이 저기 보인다.

은빛 갈기 날리며 어서 가자,
당의 품 속에서 태여나
투쟁의 날개 활짝 펴고
천리마야, 조국 창공을 어서 날자!

오직 당을 위하여

리 종렬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영웅관에 들어 가면 강 호영 영웅의 반신상이 놓여있는데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발이 씌 있다.

《나의 팔 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네 놈들에게 대한 복쑤는 오히려 더 강하여졌다.

조선 로동당원의 꺾을 수 없는 투지와 당과 수령을 위하여 굳게 다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리라!》

포탄에 팔 다리를 잃었으나 입에 수류탄을 물고 불타는 눈으로 앞을 쏘아 보는 강 호영 영웅…

하루에도 수천 수 만 명씩 밀려 드는 관객들은 영웅의 이 동상 앞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치 못한다.

…1951년 2월 중순

강 호영 분대장이 속한 중대는 남강원도 원주 계선 가막봉에서 원쑤들의 발악적 공격을 물리치고 있었다.

이 고지는 원주 제천 간의 도로를 끼고 있어 원쑤들은 이 고지를 점령해야 더 북으로 밀고 들어 올 수 있었다.

고지는 불 바다로 변했다.

원쑤들은 항공 폭격,포사격을 계속하여 가막봉을 한벌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인민군 용사들은 놈들에게 한치의 조국 땅도 내주지 않기 위해 피로써 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18 차의 적 공격을 물리쳤을 때 고지에는 몇 사람 남지 않았다.

공개 당 총회가 열렸다. 중대 세포 위원장인 강 호영 분대장이 제일 먼저 토론했다.

《우리는 당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전투원과 수류탄과 보총탄이 있을 뿐입니다. 목숨 바쳐 이 고지를 사수할 것을 당 앞에 맹세합시다》

강 호영 형님의 불같은 토론이 끝나자 뒤이어 민청원인 원 용칠 전사를 비롯한 여러 전사들이 세포 위원장의 호소를 지지하여 토론했다.

놈들은 열 아홉 번째 공격을 준비하면서 미칠듯이 포탄을 쏘아댔다.

고지는 치솟는 흙먼지의 구름에 덮였다. 전호는 허물어지고 전사들은 흙에 파묻혔다. 포화는 점점 더 무섭게 들씨워졌다. 전사들은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세포 위원장인 강 호영 형님은 이런 때에도 자기 전호에 엎드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전호로 저 전호로 뛰여 다니며 전사들을 고무했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원쑤놈들의 포탄에 중상을 입게 되였다. 포탄이 바로 그의 옆에서 터져 그의 두 다리와 한 팔을 짤라 갔고 나머지 한 팔마저 부상당하였다.

전우들이 그에게로 뛰여 와 상처들에 붕대를 감고 나서 그를 맞 들어 후송하려고 할 때 강 호영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동무들이 나를 사랑하거든 이 자리에 편히 눕혀 주오. 동무들은 화선 공개 당 회의의 굳은 맹세를 잊었소? 한 사람의 후송을 위해 두 명의 전투원을 내다니 이 고지를 내주자는 셈이요? 동무들 내 걱정을 말고 빨리 위치로 가오.》

이 때 정치부 중대장이 뛰여 왔다.

강 호영은 군복 저고리의 앞 섶을 헤치며《정치 부중대장 동지! 내 당증을…내…당증을…맡아 주십시오…》. 하고 목메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는 몇몇 전사들을 돌아 보며

《동무들 눈물을 걷소 나는 눈물을 보고 싶지 않소》. 하고 말했다.

적들이 기여 오르기 시작 했다. 놈들은 이번에는 꼭 공격에서 성공하려고 몇배의 병력으로 기여 올라 왔다.

전사들은 자기 전호에로 뛰여 가 올라 오는 놈들에게 불 벼락을 안겼다.

강 호영은 참호에 누운채 전우들의 총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불렀다.

………………

우리의 피가 끓어 넘쳐
결사전을 하게하네

………………

전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더 용감히 싸웠다.

얼마 후 참호로 놈들의 수류탄이 날아 들어 오고 아군의 사격에 맞아 쓰러지는 원쑤들의 비명이 들렸다.

《놈들이 고지 꼭대기를 거의 다 올라 왔구나》하고 생각한 강 호영은 몸을 일으켜 참호 턱에 놓여 있는 마지막 수류탄을 쥐고 간신히 참호에서 기여 나왔다.

그는 불타는 눈'길로 밑을 쏘아 보았다. 적들은 바로 턱 밑에서 무리지여 기여 오르고 있었다.

부상 당한 팔을 겨우 놀려 수류탄 고리를 뽑은 그는《조선 로동당 만세!》하고 웨치며 입에 수류탄을 물고 원쑤들의 무리 속으로 굴러 들어 갔다.

뒤이어 일어난 요란한 폭음과 함께 적들은 무리 주검을 당했다.

원쑤놈들이 아무리 발악한들 우리 당의 이런 전사들을 어찌 이길 수 있었으랴!

열 아홉번째 공격에서 놈들은 완전히 기를 꺾이고 더 덤벼 들지 못했다.

이리하여 고지는 사수되였다.

1951년 7월 5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당과 조국의 참된 아들—강 호영 형님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강 호영 영웅의 장렬한 최후의 모습은 그대로 조각되여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영웅관에 모셔져 있다.

오늘도 강 호영 영웅의 동상 앞을 지나는 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당과 조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고 돌이켜 보게된다.

소년단원 동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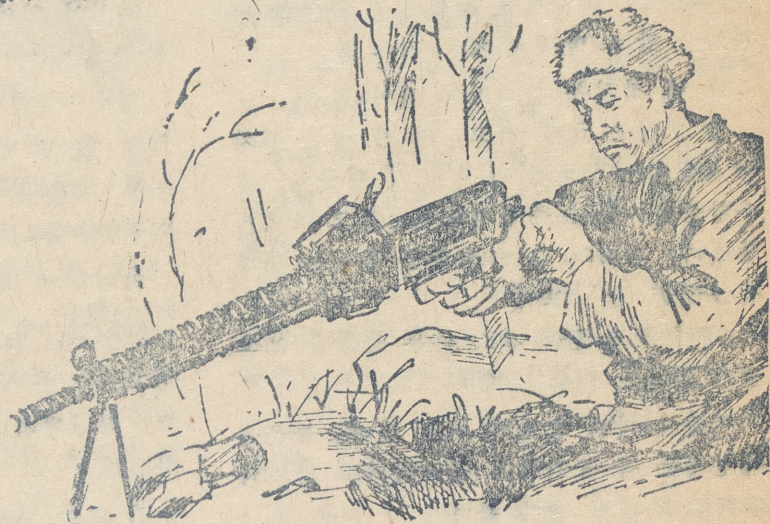
우리들도 당의 붉은 어린전사 답게 강 호영 영웅처럼 당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씩씩하고 용감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해 나가자!

(1)

어느듯 적들은 원주네 중대를 포위할 작정으로 사방에서 조여 들기 시작하였다. 중대장은 놈들의 포위에서 벗어나 다시 그놈들을 거꾸로 포위할 계획 밑에 경호네 기관총 분대에 놈들을 그들에게로 집중시킬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는 중대를 깜쪽같이 빼 돌리기 시작하였다.

(2)

경호 분대장은 사방에 대고 맹렬한 사격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그는 중대에서 련락이 올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되였다. 적들은 유격대의 전술은 모르고 경호네 분대를 향해 달려 들기 시작하였다.

(3)

현철 중대장의 작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되였다. 놈들을 골 안에 몰아 넣고 포위를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는 경호네 기관총 분대를 빼 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중대장은 경호 분대장에게 물러서라는 명령을 전달할 임무를 원주에게 주었다. 원주는 긴장하여 첫 전투 명령을 받았다.

(4)

원주는 정신 없이 앞으로 내달렸다. 맹렬한 총소리와 수류탄이 작렬하는 소리가 귀를 메게 하였다. 원주를 발견한 적들은 일제히 그에게 총탄을 퍼 붓기 시작하였다. 비'발치는 총알은 발 밑에 푹푹 박혔다. 원주는 그만 더럭 겁이 나서 웅덩이에 납작 엎드렸다.

(5)

원주는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총알은 계속 무수히 날아 들었고 뛰여 나가기만 하면 금시 죽을 것만 같았다. 한 동안 눈 속에 엎더려 있던 원주는 제 정신이 들어 자기가 맡은 전투 임무가 생각났다. 앞에서는 계속 경호 분대원들이 사격을 하고 있었다.

(6)

이때였다. 한곳에 엎더려 움직일 줄 모르는 원주를 향해 두 놈의 왜군들이 살금살금 기여 들기 시작하였다. 등뒤로 기여 드는 적들을 원주는 알리 없었다. 두 놈의 적들은 원주를 사로 잡을 생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기여 왔다. 이십 메터…십 메터로….

(다음 호에 계속)

당의 전사된 마음으로

룡성 기계 공장 2중 천리마 청년 작업 반장 로력 영웅 주 성일

우리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방조자인 민청원답게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아마 기사 기수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아직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보지도 못한 8 메터 타닝반(몇백 톤 짜리 기계도 마음 대로 깎는 기계)을 만들어 냈고 또 오늘은 3,000 톤의 힘으로 내려 눌러 두터운 철판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찍어 낼 수 있는 3,000 톤 프레스라는 굉장한 기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고 처음엔 의아적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들 앞에 못할 일이라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2중 천리마 작업반까지 되는 기간에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어 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렵니다.

지난해 봄 우리가 황해 제철소에 보낼 압연기 스탠드(철을 늘구는 기계)를 만들 때였습니다.

《기계가 커서 우리 공장 기계로 만들어 내겠소? 되지도 않을 일은 시작하지도 말게지》 이것은 낡은 것을 고집하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이였습니다.

누구나가 어렵다고 선듯 손을 대기 힘들어 하였지만 당의 지도 밑에 우리가 해 내겠다고 결의해 나섰습니다.

산도 무너뜨릴듯한 혈기와 의지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그런 낡은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모두 이 일에 뛰여 들었습니다. 오직 그 때의 우리의 마음은 당을 믿고 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한 가지 신념뿐이였습니다.

합숙과 집에서 밥을 날라다 먹는 것은 보통 일로 되였습니다. 동무들이 모여 앉아 지혜와 재능을 짜고짜서 며칠 후에는 빠찌칼과 보링그라는 것을 창안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시운전에서 그만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우둥'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으며,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15여 성상 오늘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곤난을 무릅쓰고 싸워 이겼는가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군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주머니 두 분이 공장에 찾아 왔습니다. 집 주인이 간밤에 집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알고 보니 리 영만 동무와 한 동무는 밤에 뻐스를 타고 함흥 도서관에 가서 밤새껏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베껴 왔던 것입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공장에는 수상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온 공장에 퍼졌습니다. 삽시간에 온 공장 구내는 환희와 만세 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수상님은 제일 먼저 우리 작업반에 오셨습니다. 수상님은 혁명 투사답게 애로를 뚫고 나가 기한내로 기계를 만들 것과 앞으로 6~8 메터 타닝반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묻은 나의 손을 잡아 흔드시면서 천리마란 이름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좋은 이름이니 꼭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쟁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둥'불 곁에 모여 앉은 우리는 저마다 마음 속으로 수상님의 이 말씀을 기어히 실천해 내고야 말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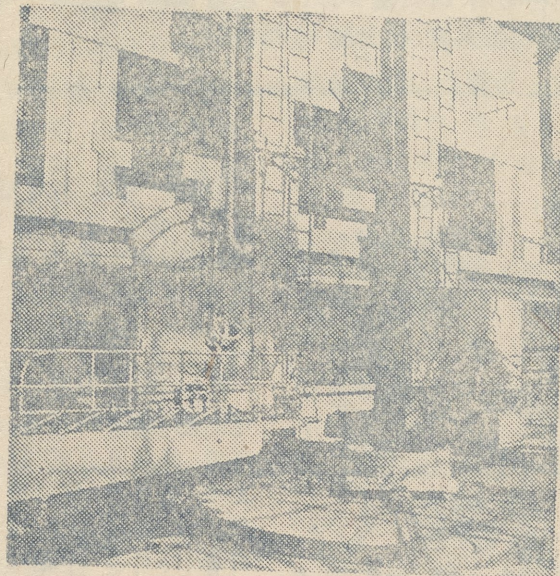
우리의 로력 투쟁과 연구는 더욱 세찬 불'길로 타 올랐습니다.

우리가 창안해 낸 것으로 100 날이 걸려야 된다던 압연기 스탠드를 불과 15일 동안에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만함이 없이 수상님께서 말씀하신 8 m 타닝반을 만드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길이가 11, 6m, 너비가 16 m, 높이가 6, 8m 무게가 360톤이나 되며 1,200여 가지의 부속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무게가 몇백 톤이 되는 아무리 큰 것도 마음 대로 깎을 수 있으니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 발전에서 실로 큰 의의를 가지는 기계입니다.

아저씨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8 메터 타닝반

만일 우리가 8 m 타닝반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오늘 3,000 톤 프레스를 만든다는 것은 빈 말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큰 기계를 우리 나라의 자재와 우리의 기술로 만든 것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공업이 발전된 나라에서도 2~3 년은 걸려야 만든다는 것을 불과 5 개월 동안에 만들었으니 정말 천리마를 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8 m 타닝반을 만들었을 때 수상님은 우리들에게 축하문과 함께 많은 선물도 보내 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 수상님은 우리 공장에 오셔서 제일 먼저 8 m 타닝반부터 돌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인제는 아무 막힘 없이 우리 나라에서도 큰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00 톤 프레스를 꼭 제 기일 내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이 프레스를 만드는 작업의 70% 이상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많은 곤난에 부닥쳤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모여 앉아 서로의 지혜를 짜 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습관으로 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고원 빨찌산에서 13 세의 어린 몸으로 원쑤와 싸운 김 용주 동무는 닷새 동안을 꼬박 공장에서 새우면서 《라무시린다》라는 프레스 부속을 깎는 기계를 창안해 내여 우리가 2,000%의 작업 능률을 높이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장에서는 이번에 이 3,000 톤 프레스도 훌륭히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나아 갈 앞 길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부름 받들고 나선 우리 앞에는 못해 낼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2중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빛내이면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워 1963년에는 작업반 성원의 75%가 기사 기수로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당 창건 15 주년을 맞으며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꾸준히 학습하면서 공장의 자동화에 힘쓰는 한편 질 좋은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을 따른 어린 전사들

조선 로동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조선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당을 따르며 당과 조국 앞날의 씩씩한 일'군으로 배우며 준비하고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당을 따라 용감히 싸운 많은 어린 투사들 중 몇 동무의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한다.

《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 애국자 백 운성은 리 수복 영웅의 이름과 함께 우리 력사에 영원히 그 이름을 날릴 것이다.

조국 해방 전쟁이 시작되자 로동당원인 운성의 형님은 인민 군대에 입대하여 전선으로 나가시면서 운성이에게 말씀하시였다.

《머슴'군의 아들이였던 우리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도 어느 곳에 있던지 로동당원의 동생 답게 살아야 한다》

운성이는 소년단에서 전선 원호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형님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전쟁이 점점 어려워 지게 되자 운성이는 전선 원호 사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였다. 인민 군대에 입대하려고 결심한 운성이는 누구나 어리다고 말리였지만 끝내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운성은 16세의 어린 소년단원의 몸으로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따라 전선으로 나갔다.

발악하는 적들을 눈 앞에 볼 때 마다 운성이는 생각하였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아니였드라면 나는 학교 문에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쑤들은 나에게서 이 행복을 빼앗으련다. 안된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형님의 말씀대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를 지켜 싸우리라》

백 운성 동무의 이 굳은 결의는 원쑤를 무찌르는 싸움에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하였다.

입대 후 3개월 만에 351 고지 습격 전투에 참가한 운성은 전투가 가장 어려워진 순간 소대장 앞을 앞질러 나가 붉은 넥타이를 매던 가슴으로 불을 뿜는 원쑤의 화구를 막았다. 그리하여 전우들이 돌격할 길을 열어 놓았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운성 동무가 자기 형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형님 나는 형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적을 향해 나갑니다. 만일 내가 나의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를 대신하여 전해 주십시요.

당을 따른 운성이는 소년단원의 임무를 다했다고…》

나 어린 애국자 서 강렴

서 강렴 동무는 조선 소년단이 낳은 수많은 어린 애국자들 중의 한 동무이다.

미제 원쑤놈들이 자기 고향 고원 지방을 강점하게 되자 로동당원 아저씨들을 따라 고원 빨찌산에서 소년 정찰병으로 용감히 싸웠다.

서 강렴은 그만 싸우던 도중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다.

미군 《씨 아이 씨》에 끌려 가던 서 강렴 동무는 눈 앞에 김 일성 원수님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원쑤들 앞에서 굴할 줄 모르고 싸운 아동 혁명단원들과 항일 유격 투사들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었다.

서 강렴은 짐승같은 원쑤놈들에게서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빨찌산의 비밀을 끝끝내 지켰다. 그는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원쑤놈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총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웨친 어린 애국자 서 강렴의 심장의 노래는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개놈들아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놈들의 가슴팍에 복쑤의 총알을 꽂을 수만의 영웅적 인민이 있다. 그 선두에는 김 일성 원수님이 서 계시다. 로동당의 기'발이 우리의 승리를 불러 주고 있다》

놈들의 총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서 강렴은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이렇게 속삭였다.

당의 아들 서 강렴—그 이름은 조선 소년단원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당의 딸

애국 소녀 박 경숙은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 함남 함주군에서 소년 선봉대를 조직하여 놈들과 용감히 싸웠다.

미국놈들은 마을에 기여 들어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신 로동당원들을 끌어다 학살하였다.

마을에 기여 든 미제 원쑤놈들은 후퇴하여 북으로 가신 아버지(로동당원)를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끌어 가고 언니를 학살하였다.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그처럼 행복하던 경숙이네 집은 일순간에 어두워지고 즐겁게 배우며 뛰놀던 학교도 온데 간데 없어졌다. 마을에는 승냥이 떼 같은 미국놈들이 밀려 다니며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행복하던 지난날을 끝없이 생각하던 경숙이는《로동당의 품 속이 아니고서는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로동당원들을 구원하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싸워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경숙이는 자기와 함께 소년단 사업을 하던 몇몇 동무들과 같이 로동당원들을 끌어 가는 미국놈을 때려 눕히고 로동당원들을 구원하였고 다음은 보초놈을 꺼꾸러뜨리고 창고 속에 갇히운 수 많은 로동당원들을 구원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나 어린 당의 딸 경숙동무에게 국기 훈장 제 3 급을 수여하였다.

폭포처럼 쏟아질 비날론

박사 리 승기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 중심지인 흥남에는 또 하나의 큰 화학 공장인 비날론 공장이 일떠 서고 있습니다.

비날론 공장은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우리 나라 근로자 아저씨들과 과학자들에 의하여 눈부신 속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비날론이란 것은 카바이트에서 뽑는 실을 말하는데 카바이트는 석회석과 무연탄과 전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카바이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비날론의 원료는 무진장 합니다.

아마 동무들은 카바이트에서 어떻게 실을 뽑을 수 있을가고 신기하게 생각하겠지요.

처음 비날론을 만들자면 석회석과 무연탄으로 카바이트를 만듭니다. 다음은 이 카바이트에 물을 섞어 아세찔렌 가스를 만듭니다.

다음에는 아세찔렌 가스를 빙초산으로 만들며 그것을 다시 가열하여 거기에서 증기를 뽑습니다. 이 증기와 아세찔렌 가스를 합쳐서 초산 비닐(걸쭉한 물과 같은 물질)을 만듭니다. 이 초산 비닐의 작은 알맹이 들을 여러 개 합치면 폴리 초산 비닐이 됩니다. 이 폴리 초산 비닐을 가성소다와 메타놀로써 분해시키면 폴리비닐 알콜(흰 빛의 가루 혹은 덩어리로 된 물질)이 됩니다.

이 폴리 비닐 알콜이 바로 비날론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료입니다. 이 폴리 비닐 알콜을 뜨거운 물속에 넣어 용해시킨 다음 반죽을 만듭니다. 이 반죽을 국수 분틀과 같은 큰 기계에 넣고 짜면 아주 질이 좋은 비단 실이 되여 나옵니다. 이 비단실을 열 처리한 다음 다시 정성껏 다듬으면 아주 곱고 든든한 비단실이 됩니다. 이것이 곧 비날론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비날론은 그 값이 목화로 짠 천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날론은 다른 천들보다 세곱반이나 더 질깁니다. 비날론의 좋은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천들보다 아주 가볍고 땀을 잘 빨아 들이기 때문에 살에 들어 붙지 않습니다. 빨래질 할 때에도 곯이지 않고 찬물에 빨아도 때가 참 잘 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직들보다 물감이 잘 들며 색이 잘 날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때 놈들의 압박과 착취 밑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고작해야 무명 옷 아니면 사철 베옷을 입으며 구차하게 살아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하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 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우리는 재'더미 우에서 살림을 다시 꾸리게 되였습니다.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방직 공장을 수 많이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늘어가는 우리의 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당은 7 개년 계획 기간에 5 억 메터의 천들을 짤 과업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방직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목화가 그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카바이트의 원료인 석회석, 무연탄, 전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므로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면 비날론, 염화 비닐 등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며 농촌에 더 많은 화학 비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 공업을 발전시켜 나무, 갈대, 옥수수 짚 등으로 스프나 인견사를 만들며 카바이트에서 비날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 일성 수상님은 2 만 톤에 해당하는 비날론을 얻는다는 것은 실로 20 만 정보의 새 땅을 얻는 것과 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은 오래전부터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날론 공장을 지을 것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당의 배려에 의하여 건설되는 비날론 공장의 제 1 계단 공사는 명년 5.1절까지 끝내게 됩니다.

제 1 계단 공사가 끝나면 1 만톤의 비날론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7 천만 메터의 좋은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말까지에는 2 만 톤을 뽑을 수 있는 공장으로 건설됩니다. 이때에 가면 여기서 나오는 비날론으로 1 억 5 천만 메터의 옷감을 인민들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김 일성 수상님은 비날론 공장 건설장을 돌아 보시고 《모든 것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구호 밑에 이 공장 건설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도울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상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일 계획을 평균 150% 밖에 수행하지 못하였었는데 지금은 2 배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날론 공장 건설장에는 공화국 각지에서 보내 오는 원목, 쎄멘트, 강철, 기계등 건설에 필요되는 자재들이 하루에도 몇 차량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일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일찌기 1939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날론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놈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천대를 받아 왔고 더 연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되였으나 미제와 리 승만 통치하의 남조선에서는 과학 연구 사업이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마음껏 인민을 위한 연구 사업을 하게 되였습니다.

당은 그렇게도 어려운 때인 가렬한 전쟁 시기에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나의 연구 사업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비날론 공장에서는 값싼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림은 얼마나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는 붉은 넥타이를 자랑스럽게 날리며 뛰노는 소년단원 동무들을 볼때마다 내 고향 남반부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어린 동무들을 생각합니다. 조국이 통일되는 날 그들에게도 이 좋은 옷감이 차례지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연구 사업을 하는 나는 생활이 늘어 가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있는 재능과 지식을 당과 인민을 위한 연구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참 좋은 분단에 왔구나

황해남도 해주시 사미 중학교 단 제 7 분단에서

글 김 준규　　　　그림 최 순천

《경희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

2 반에 있는 분단 위원인 유 숙자 동무가 분단 위원장 김 민자 동무를 만나 말했습니다.

경희는 1 학기 때 이 분단에 새로 왔습니다. 온 날부터 입을 꾹 다물고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학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읽을 것을 지명 받았는데 일어 서서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희는 끝내 읽지 않아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였습니다.

공부가 끝난 다음 숙자가 《넌 왜 그러니?》하고 말했더니 눈물을 흘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학교에 나오지 조차 않았습니다.

참말 모를 일이였습니다.

경희는 노래를 시켜도 그랬습니다. 경희의 노래를 듣자면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분단 위원회 때면 늘 2반 말이 나오기 마련이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2 반에 있는 위원인 숙자는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 경희를 나무랬습니다.

2 반 반장인 소 영숙 동무는 경희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집에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경희만 있었습니다. 경희는 묻는 말에도 잘 대답하지 않아 몇 번이나 그냥 되돌아 서군했습니다.

며칠 후 민자는 숙자와 영숙이를 데리고 경희네 집에 찾아 가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벌써 알려 줄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경희의 성미를 알려 줬습니다.

경희가 옹진 중학교 인민반에 다닐 때랍니다.

국어 시간에 경희가 일어 서서 읽었더니 아이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함흥에서 살다가 온 경희는 이곳 아이들과 말씨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날 경희는 너무 부끄러워 종일 울고 다시는 읽지도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경희가 무용을 몹씨 하고 싶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숙자와 영숙이는 막 좋아서 돌아 왔습니다.

다음 날 분단 위원회에서는 경희를 무용과 노래를 잘하는 위원인 전 명숙 동무가 돕도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위원들은 저마다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소년단원들을 날날이 알고 도와 주는 데 힘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 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대로 소년단 사업을 잘 할 데 대한 분단 총회를 하면서 《위원들은 모든 일에 앞장 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누구나 다 독보원이 되여 《소년 신문》과 잡지 《소년단》을 잘 읽고 당 정책과 새 소식을 알려 주며 다른 학교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분단 앞에 나서는 일들을 동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장들에게만 맡겨 두었던 공부가 뒤떨어진 옥 춘자, 박 순명 동무도 위원인 전 명숙, 강 은숙 동무가 도와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니 위원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뒤에서 시비하기를 좋아하던 민 회전 동무까지 곁을 지나는 전 명숙 동무의 치마자락을 잡아 당기며 《얘 이 문젤 좀 대 주렴》 하고 따라 다니며 묻는 것이 였습니다.

체육을 즐기는 위원인 김 춘옥 동무는 분단 동무들이 누구나 피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화 팀》과 《갈매기 팀》으로 편을 갈라 위원들이 앞장에 서서 짬만 있으면 련습했기 때문에 시합에서 늘 1 등을 찾이했습니다.

이리하여 분단 동무들은 모두 분단의 영예를 느끼기 시작하여 무슨 일에서든지 제일 앞서는 분단이 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참 좋은 분단에 왔구나!》 경희도 어느듯 숙자와 영숙이에게 이런 말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지난 어느 일요일에는 해주 력사 박물관으로 갈 것이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날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학습장과 함께 비와 걸레를 가지고 온 것이였습니다. 2 반 동무들 중에는 바께쯔를 든 경희의 명랑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이 날 이들은 박물관 견학을 끝내고 박물관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돌아 왔습니다. 새 학년도에 들어와 분단은 더욱 단결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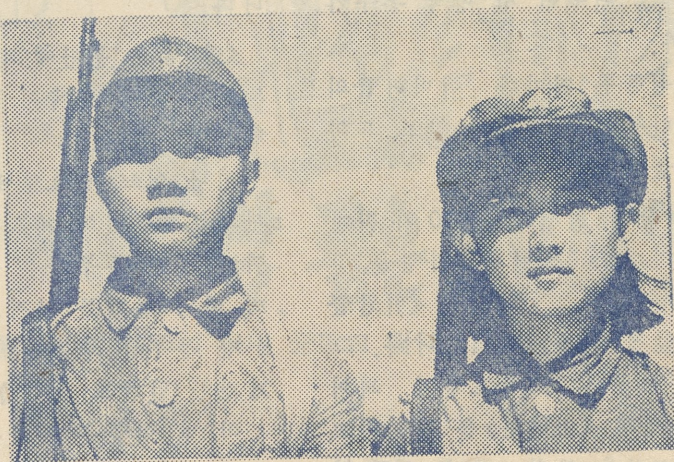
《붉은 꽃봉오리》의 한 장면

영화《붉은 꽃봉오리》의 주인공 정 만옥의 역을 맡았을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정말 슬기로운 아동 혁명단원 정 만옥의 역을 해 낼 수 있을가?》

그러나 연출가 선생님이랑 또 우리 분단 동무들의 힘이되는 충고는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안겨 주었다. 나는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대본을 읽고 또 읽었다. 우선 나는 내가 참된 아동 혁명 단원이 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슬기로운 아동 혁명단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학습하였다. 나는 이 학습을 하면서 몇번인가 눈물을 먹음군 하였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치는 그들의 훌륭한 혁명 정신에 감격되였던 것이다.

영화《붉은 꽃봉오리》는 1930년대 정 만옥과 윤해라는 두 소년이 어떻게 혁명의 불'길 속에서 아동 혁명단원으로 공청원으로 자랐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쫓겨 난 만옥과 윤해는 슬픔과 기쁨을 언제나 같이 나누는 친한 동무들이다. 지하 조직의 책임자인 어머니를 가진 만옥과 또한 반일회원인 아버지를 가진 윤해는 어느날 비밀 통신을 가지고 가던 공청원 리 순희 언니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부상 당한 순희를 정성껏 도와 준다. 순희를 통하여 만옥은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며 어머니를 돕는 일에 나선다.

만옥과 윤해는 비밀 통신을 유격대 련락 장소에 전한다. 이것은 이들이 혁명의 길에 나서서 수행하는 첫 임무였다.

이때로부터 만옥과 윤해는 혁명을 위해 싸우는 어머니를 적극 도와 나선다. 그러나 어머니는 놈들의 토벌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리하여 만옥은 윤해 어머니와 함께 유격 근거지로 들어 간다. 여기서 이들은 아동 혁명단 지도자인 리 순희 언니를 만나 아동 혁명단 생활을 하게 된다.

만옥과 윤해는 빨리 커서 부모님들의 원쑤를 갚고 조국을 찾기 위해 힘쓴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번 규률을 위반하여서 조직의 충고도 받는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만옥과 윤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미더운 투사로 자라난다.

곤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 간다. 식량 부족, 놈들의 여러 차례의《토벌》, 굶주림 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거듭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있는 힘껏 유격대 아저씨들을 돕는다. 만옥과 윤해 앞에는 새로운 과업이 나서게 된다. 두겹 세겹으로 싸인 왜놈들의 포위망을 뚫고 유격대 련락 장소에 비밀 통신을 가져 가게 된다. 만옥과 윤해는 오직 혁명을 위한 굳은 결심 밑에 정든 근거지와 동무들과 헤여져 떠난다.

이들은 불행히도 도중에서 놈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이들에 대한 무서운 고문이 시작된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두 아동 혁명단원들은 끝까지 입을 다문다. 혁명 임무를 어느 때나 잊지 않는 만옥은 윤해의 포승을 입으로 풀어 그를 끝내 련락 장소로 보낸다. 혼자 남은 만옥은 혁명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기쁨과 자랑으로 놈들의 고문을 이겨 낸다. 약이 오른 왜놈들은 만옥을 죽일 차비를 한다. 위험한 순간이 닥쳐 온다. 그러나 만옥은 적개심에 이글거리는 눈을 들어 놈들을 향해 소리 친다.

《나는 무섭지 않다! 나는 김 일성 장군님의 아동 혁명단원이다.》

왜놈 장교가 그의 목을 치려는 순간 한 방의 총성과 함께 왜놈 장교는 쓸어진다. 윤해가 유격대 아저씨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옥과 윤해는 영예롭게 혁명 임무를 완수한다. 그후 만옥과 윤해는 그처럼 부럽고 부럽던 공청에 가맹하고 나어린 몸으로 유격대에 입대한다.

이것이《붉은 꽃봉오리》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 만옥이로 출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첫째로, 혁명을 위하여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드는 아동 혁명단원들의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이 그것이였다. 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지난 날의 나의 소년단 생활을 도리켜 보며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둘째로, 아동 혁명단원들이 조직 생활에 충실하며 조직이 주는 임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가리지 않고 해 내는 책임성이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처럼 굶주리며 쓸어지면서도 조직에서 위임한 모든 일을 끝까지 해 낸 것이다.

세째로, 아동 혁명단원들의 눈물겨운 동지애가 그것이였다. 동무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타이르면서도 그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희생 정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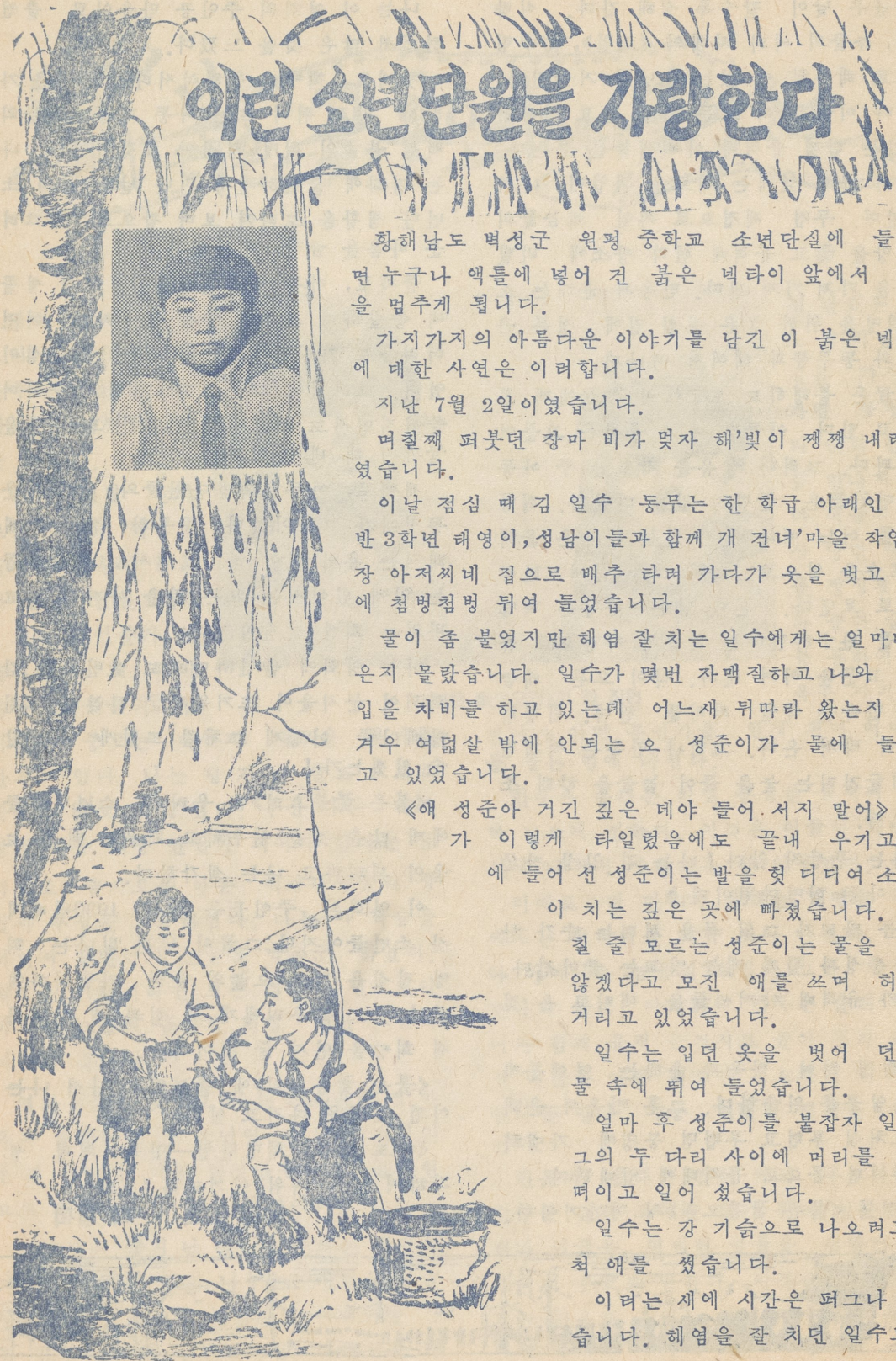
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몇번인가 감격되여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하였다. 친 형제인들 어떻게 그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붉은 꽃봉오리》는 우리들 소년단원들에게 많은 것을 뉘우치고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비록 1930년대에 산 소년들이지만 그들이 남긴 빛나는 혁명 정신은 바로 오늘의 우리 가슴마다에 살아 있으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희망을 안겨 줄 것이다.

《붉은 꽃봉오리》에 출연하고 나서 나는 이런 결심을 다지고 있다.

《나도 아동 혁명단원—만옥이처럼 생각하며 살며 싸워 이기리라!》고

무용 학교 탁 명덕

이런 소년단원을 자랑한다

황해남도 벽성군 원평 중학교 소년단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액틀에 넣어 건 붉은 넥타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이 붉은 넥타이에 대한 사연은 이러합니다.

지난 7월 2일이였습니다.

며칠째 퍼붓던 장마 비가 멎자 해'빛이 쨍쨍 내려 쪼였습니다.

이날 점심 때 김 일수 동무는 한 학급 아래인 인민반 3학년 태영이, 성남이들과 함께 개 건너'마을 작업 반장 아저씨네 집으로 배추 타러 가다가 옷을 벗고 강물에 첨벙첨벙 뛰여 들었습니다.

물이 좀 불었지만 헤염 잘 치는 일수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일수가 몇번 자맥질하고 나와 옷을 입을 차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뒤따라 왔는지 올해 겨우 여덟살 밖에 안되는 오 성준이가 물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얘 성준아 거긴 깊은 데야 들어 서지 말어》 일수가 이렇게 타일렀음에도 끝내 우기고 물에 들어 선 성준이는 발을 헛 디디여 소용돌이 치는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헤염 칠 줄 모르는 성준이는 물을 먹지 않겠다고 모진 애를 쓰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수는 입던 옷을 벗어 던지고 물 속에 뛰여 들었습니다.

얼마 후 성준이를 붙잡자 일수는 그의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대여 떠이고 일어 섰습니다.

일수는 강 기슭으로 나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러는 새에 시간은 퍼그나 흘렀습니다. 헤염을 잘 치던 일수도 그만 힘이 진하여 더는 어쩔 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힘을 다 모아 성준이를 강 기슭으로 힘껏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기진해진 그는 그만 다시 솟아 오르지 못했습니다.

× × ×

일수는 인민 학교 4학년 때까지 내내 최우등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남달리 동무들과 손아래 아이들을 사랑한 일수는 고기 잡이를 무척 좋아 했습니다.

낚시질도 잘 했지만 주낙을 놓아 잡기도 했습니다.

밤에 주낙을 놓고는 아침에 일찍 나가봅니다.

《굉장히두 걸렸구나!》

《야 정말!》 일수가 주낙에 걸린 고기를 하나씩 빼 내어 다래끼에 담으면서 좋아할 때 어느새 뒤따라 온 성준이가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일수는 늘 《할머니께 구워드려야 해》 이렇게 말하면서 잡은 고기를 성준이에게 나누어 주군했습니다.

동생이 없는 일수는 마을 손 아래 아이들을 친 동생처럼 귀여워 했습니다. 성준이는 일수가 학교에 갔다 오기만 하면 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일수는 작년 4월 15일에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붉은 넥타이를 맨 일수의 가슴에는 자랑과 기쁨만이 가득 찼습니다.

《난 항상 최우등으로 공부하여 이담에 인민 군대가 되겠어, 그래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테야, 원쑤놈들이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진 다음엔 꼭 로력 영웅이 되겠어》

이날 일수는 반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동당원이고 농맹 위원장이였던 일수의 아버지는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미쳐 후퇴하지 못해 그만 원쑤놈들에게 억울하게 학살되였던 것입니다.

일수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투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일수네 반 일은 어느 반보다 잘 되였습니다. 그런데 리 성용 동무가 늘 말썽을 부렸습니다.

어느날 소낙비가 퍼붓는 날이였습니다. 일수는 우산을 쓰고 성용이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성용이는 비 올때마다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 아파서 못가겠어 그리고 우산도 없는데 뭘 아버지가 쓰고 갔어》

들어 누워 있던 성용이가 얼굴을 찌프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이 또 뒤떨어지겠구나 좀 나으면 이따 내 우산을 쓰고 와》

일수는 성용이에게 우산을 주고 옷을 훌훌 벗어 책가방에 넣어 메고 모진 비'속을 뚫고 뛰였습니다.

《일 없으면 꼭 나와 응!》

성용이는 우산을 받아 쥔채 일수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수야 같이 가자!》 성용이는 그만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 일수를 뒤따라 뛰였습니다. 며칠 후 성용이는 반 동무들 앞에서 조합 아저씨들이 해 놓은 나무를 가만히 가져간 일까지 낱낱히 말했습니다.

이날 일수는 집으로 돌아 오면서 《분단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하면 못할일이 없구나》 하고 한층 반 사업에 대한 자신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수는 소년단 생활의 보람찬 나날 속에서 붉게붉게 마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순간에 부닥쳤을 때 서슴 없이 생명을 바쳐 동무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수의 마음은 우리 소년 단원들 모두의 가슴을 오래오래 뜨겁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선 통신

서로 도와가며 공부한다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평북 선천군 일봉 중학교 통신원 주 응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단 제1 분단 동무들의 새 학년도 공부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단에서는 개학 하자 곧 분단 위원회를 열고 새 학년도 초부터 서로 도와가며 공부를 잘해 나가자고 토의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서 말입니다. 분단 위원장 허 경식 동무는 수학을 힘들어 하는 최 정호 동무를 맡았습니다. 경식 동무는 매일 아침 남보다 일찍 나와 정호 동무의 수학과 학습을 도와 줍니다. 휴식 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가르쳐 주지요. 집에 돌아 갈 때는 대수나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을 대여 주고 그를 외우도록 도와 줍니다. 그래 최 정호 동무도 수학과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식 동무는 정호 동무 뿐 아니라 많은 동무들의 학습을 도와 줍니다. 이 모범을 따라 이 분단 동무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새 학년도 초부터 서로 도와 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성자 강습을 조직한다

여보십시요!

소년단 편집부 입니까?

황북도 수안군 수덕 중학교 통신원 원 재독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단에서는 단 분단 위원회 사업 총화와 위원 선거를 진행하는 한편 분단 위원들과 반장들 그리고 많은 열성자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 주일에 한번씩 열성자 강습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열성자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구요?

지난해 까지만해도 위원들과 열성자들의 역할이 아주 약했습니다.

실무 수준이 어렸기 때문이지요. 그래 우리는 이번 새 학년도 부터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달려 붙었습니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 소년단 규정,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소년단의 의식, 소년단의 상징과 징표 그 밖에도 단, 분단, 반 사업 계획 수립 방법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요새는《소년 신문》과 《소년단》에 실린 《조선 소년단 규정 해설》을 가지고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한 조항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열성자들은 자기들이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단원들에게 알려 주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겨울에 먹일 도끼풀을 마련해요

황해남도 옹진군 만진 중학교 단 통신원 박 봉녀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 단 총회에서는 겨울 철에 토끼를 잘 기를 데 대해서 의논했어요.

그래 지금 분단 마다에서는 공부가 끝나고 짬 있는 시간을 얻어 아까시아 잎, 사타귀, 싸리 잎, 칡 넌출 등을 뜯어 말리우고 있습니다.

토끼 한마리의 몫을 70키로그람씩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요. 넉넉히 먹고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경 4m되게 땅을 3m 깊이로 파고 저장고도 2개 만들었지요.

다 마르는 차례로 날라다가 이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아 넣습니다.

예? 얼마나 준비되였는가구요.

지금까지 분단 마다에서 가져 온 것을 모으니 3,5톤 가량돼요.

이렇게 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겨울 철에도 토끼들을 잘 키워 새끼를 많이 내울 작정이예요.

이래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한편 나라의 축산업 발전에도 계속 이바지하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단에서는 전국 청소년 미술 전람회에 보낼 그림들을 활발히 그리고 있으며 공예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 계획에 의하여 미술 크루쇼크원들은 한 주일에 한번씩 비료 공장과 수산 사업소 미술원 선생님을 모시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며 함께 야외에 나가 그려 보기도 합니다.

또 매개 분단들에서는 소년 신문에 실린《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 모임도 가지며 그림 보는 법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미술 크루쇼크원들중 김 용림, 주 상숙 동무들은 인민반 어린 소년들 속에 내려가 그림 그리는 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내 그림 전람회도 조직했습니다. 매개 분단들에서는 자기 분단에서 그린 수채화, 크레온화, 그림극, 만화, 조각, 인형, 수예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것을 뽑아 시 미술 전람회에 보냅니다.

수예 크루쇼크원들은 매일 한자리에 모여 《나어린 혁명가 허 상만 소년》과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수놓았습니다. 우리는 허 상만 소년의 꺾을 수 없는 애국 심을 수예에서 살리기 위해 힘쓰면서 허 상만 소년 처럼 조국을 사랑하며 조직에 충실하고 원쑤를 미워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우리들은 전국 청소년 미술 전람회에 자기의 예술적 재능과 감정을 다한 그림들을 내 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남 함흥시 흥남구역 서호 중학교단

한 화 자

전 평수

옛날부터 어느 나라에 가나 꿈에라도 한번 달 나라 또는 별 나라에 가 보았으면 하는 말들이 있다.

이처럼 지난 날은 한갖 꿈에 지나지 않던 이 우주 려행이 바로 위대한 쏘련의 과학 기술의 힘에 의해 머지 않은 앞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흥분케 하는 일인가!

그럼 이제 사람들의 달 나라 별 나라로의 려행이 어떻게 이루어 지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그러자면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벗어나서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겠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끌어 당기고 있다. 이런 결과에 자유로히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언제나 밑으로 떨어 지는 법이다. 가령 우리가 높은 곳에서 어떤 물체를 곧바로 앞으로 던진다고 하자. 이때 던지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물체는 먼 곳까지 가서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던지는 속도가 차차 커져서 만약 매초 8km의 속도로 날은다면 그 물체는 지구 표면을 벗어나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된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물체를 인공 지구 위성이라 하며 쏘련의 제 1, 제 2, 제 3 인공 지구 위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매초 8km의 속도를 제 1 우주 속도라 한다. 그런데 이보다 속도가 더 커져서 만약 매초 11.2km의 속도에 달하면 지구 인력을 벗어나 지구로부터 먼 곳으로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태양의 인력권에 들어가서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고 만다. 이 속도를 제 2 우주 속도라 하며 이러한 운동을 하는 물체를 우주 로케트라 한다.

쏘련의 제 1, 제 2, 제 3 우주 로케트가 그것이다.

그럼 이런 인공 위성이나 우주 로케트가 어떻게 무슨 힘에 의해 지구를 벗어나 그 멀리로 날아 갈 수 있겠는가를 알아 보자.

비행기일가? 아니다. 그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보통 비행기는 프로펠라를 돌려 바람을 뒤로 보내여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별이나 달에까지 가려면 도중에 공기가 없는 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목적지까지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곳도 자유로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로케트이다.

로케트는 자체 속에서 어떤 연료를 태워서 연기를 뒤로 내뿜게 하는데 이때에 여기서 생기는 반작용의 힘에 의해 그 몸뚱이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기계인 것이다. 바로 이 로케트를 리용 한다면 능히 별이나 달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여기에는 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로케트를 타고 려행하려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뿐만 아니라 그 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도 싣고 가야한다. 이렇게 많은 짐을 싣자면 로케트가 커야하고 로케트가 크면 그만큼 더 많은 연료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구가 잡아 당기는 힘을 이기고 지구에서 먼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도 많은 연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별에 가 착륙하기 위해서도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로케트가 착륙할 때에는 연료를 태워서 이번에는 반대로 연기를 앞으로 내뿜으면서 로케트의 속도를 차차 늦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로케트는 산산쪼각이 나고 말것이다.

세계에서 처음 로케트를 타고 달 나라로 갈 계획을 세상에 내 놓은 사람은 쏘련의 과학자 찌올꼽쓰끼이다.

그럼 찌올꼽쓰끼가 내놓은 우주 려행 계획을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공기나 온도가 지구와 비슷하고 따라서 지구에서 처럼 생물이 살 가능성이 가장 큰 화성에로 먼저 간다고 하자.

맨 먼저 지구 주위와 화성 주위에 인공 위성을 각각 발사한다. 다음 이 인공 위성들에다 로케트가 날아 가는 데 필요한 연료, 기계 시설, 먹을 것 등을 공급한다. 우리가 화성에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에서 로케트를 타고 인공 지구 위성까지 가서 거기서 필요한 연료라던가 그밖의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 화성의 인공 위성까지 날아 간다. 이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지만 지구에서나 화성에서 받는 인력이 아주 적고 공기도 거이 없기 때문에 마찰도 적어서 적은 량의 연료를 가지고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다음에는 이 화성의 인공 위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다음 차츰 속도를 늦추면서 화성 표면에 착륙한다. 이리하여 화성에로의 려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 올 때에는 화성과 지구의 인공 위성을 중간 정류소로 하여 지구에 돌아 오게 된다.

바로 찌올꼽쓰끼가 내놓은 이러한 우주 려행 계획이 오늘 위대한 쏘베트 과학에 의해 실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쏘련에서는 1957년 10월 4일 제 1 인공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것은 실로 우주 려행을 위하여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 것으로 된다. 그후 쏘련은 제 2 인공 위성을 거쳐 1958년 5월 15일에는 또다시 무게가 1,327kg이나 되는 제 3 인공 위성을 1,880km의 높이에 까지 쏘아 올렸다.

뒤'이어 쏘련에서는 1959년 1월 2일에는 제 1 우주 로케트를 발사하여 세계에서 첫 인공 행성을 만들었고 제 2 우주 로케트는 마침내 달에 가 닿았다. 뿐만 아니라 1959년 10월 4일에 쏘아 올린 제 3 우주 로케트는 그 마지막 계단의 무게가 1,553kg나 되고 거기에 설치된 자동 관측소는 이때까지 사람이 한번도 보지 못한 달 뒤'면의 사진을 자동적으로 찍어 이것을 무전으로 보내 오게 하여 또 다시 세상 사람들을 놀타게하였다. 이 뿐이 아니다. 쏘련은 금년 5월 15일에는 무게가 무려 4,540kg이나 되는 위성 비행선을 쏘아 올렸다. 거기에는 2,5톤의 무게를 가진 밀페실(바깥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꽉 막은 방)이 있고 그 속에는 사람의 무게를 가진 짐(사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과 사람이 타고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우주 려행에 대한 준비로서는 로케트를 다른 별까지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려행 도중에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없어야 하고 사람이 심한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쏘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2 인공 위성에 개를 실어 실험을 하였으며 특히 개와 토끼를 실은 로케트를 대기 상층에로 쏘아 올려 실험을 거듭하였다.

여기서 특히 금년 8월 19일에 성과적으로 쏘아 올린 쏘련의 제 2 우주 비행선이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비행선에도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밀폐실이 있고 그 속에 두마리의 개를 비롯한 각종 생물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 우에서 조종하여 이 밀폐실이 지구로 무사히 돌아 오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우주 력사에서 처음으로 두 마리의 개를 비롯한 생물들이 70만 킬로메터 이상의 우주 려행을 하고 무사히 지구에 돌아 왔다. 그리하여 생물들이 우주 려행에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쏘련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들은 우주 려행이 머지 않은 앞날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쏘련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미국에서는 우주 로케트를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세계 1등 가는 과학 기술을 가진 위대한 쏘련을 형제 나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머지 않은 앞날에 우리는 쏘련 인민과 함께 지상에서 뿐 아니라 별세계까지도 자유로히 려행하면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작문 남반부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할 그날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나는 우리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의 어린 동무들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같은 로동자가 남조선에서 산다면야 거지가 된지 벌써 오랬겠다. 순자는 학교란 이름 조차 모르고 자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날 밤 배울 나이에 배우지 못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 오지만 의지할 곳 없어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는 동무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같이 나누기는 고사하고 서로 편지조차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미제와 그 졸개들이 한사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방안을 또다시 내놓으셨습니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힘이 있습니다. 북반부에서는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 동무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해'빛 밝은 교실에서 남반부 동무들과 함께 공부할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 모두 힘 있게 싸워 나갑시다.

강원도 원산시 근로 중학교 단

최 순 자

420알의 닭 알

(중국), 장 개달

우리 2중대는 산 허리에 있었고 정주군 망해동 인민 학교는 산밑에 있어 마치도 아래 우층에서 사는 것 같았다.

이른 봄에도 해'별이 유난히 따사로운 어느 날이였다. 지대가 좀 낮은 편인 이 학교 운동장은 눈석기 물로하여 늘 질적질적해 있었다. 그래 휴식 시간이면 학생들이 마당에는 덜 나가고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노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가끔 아이들은 진창물에 신발을 어지럽히기가 일수였다.

지원군 중대의 지도원 동무는 학생들이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질어서 휴식 시간에 제대로 뛰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산 허리에서 내려다 보고는 저 운동장을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잘 닦아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날로 지도원 동무는 전 중대 전사들 앞에서 운동장 수리 문제를 말해 보았다. 그 말을 듣자 전체 중대 성원들은 다 같이 찬성하면서 당장 착수하자고 모두 나섰다.

《우리가 조금만 땀을 흘리면 학생들을 잘 놀게 할 수 있지 않소!》

운동장 수리 사업이 시작되였다. 먼저 하수도를 파고는 모래를 운반해 오기 시작 하였다. 4백 여명의 학생들도 이 로동에 참가하였다. 말 달구지로도 나르고 머리에도 이고, 등'짐으로도 지고 하여, 온 망해동이 흥겨운 로동 속에 들끓었다. 거기에 또 일반 인민들까지도 자청 참가하여서 정말 로동의 기세는 하늘에 닿을 지경이였다.

이렇게하여 두 세시간도 채 못 걸려서 50메터 너비에 100메터 길이를 가진 운동장은 훌륭히 만들어졌다. 운동장 어느 구석에도 진창은 보이지 않았고 온통 새하얀 모래만 부근부근하게 깔렸다. 어린이들은 이제부터 여기서 얼마나 재미 있게 놀것인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유희도 놀고 야단일 것이다. 다시 처마 밑에만 옹기종기 모여 서서 복짝거리지 않을 것이다.

× ×

안 동길 소년은 단 위원장 김 문영 동무에게 제기하였다.

《지원군 아저씨들이 우리 운동장을 수리해 주었는데 우린 뭣으루 인살 드릴가?》

《그래! 우린 닭알을 한 알씩 모아서 고맙단 마음을 표시하자꾸나》

안 동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자, 나두 오늘 가서 꼭 가져 오

겠다.》

안 동길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놈의 폭격에 돌아 가시고 다만 남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형편이였다.

안 동길은 집으로 가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병아리를 깨우려고 닭알 여섯 알을 집에 남겨 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할머니가 달라면 주겠나? 안주면 어쩌나? 할머니 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몰래 한알만 〈훔쳐〉 내자, 그리고 다음에 말하면 되잖아.》

학교에서 돌아 와 점심을 먹고 나니 할머니가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였다. 안 동길은 이 틈을 타서 방안 웃목에 걸린 다래끼 속에서 닭알 한 알을 얼른 꺼내 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른들의 눈을 속이는 것인만큼 가슴이 활랑거리고 손이 후들후들 떨려서 제깐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꺼내긴 했으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 누구한테 꼭 들키는 것만 같아 닭알을 들고 훌쩍 바깥으로 뛰여 나갔다.

빳작! 그만 닭알을 든 채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마구 울었다. 너머져 아파서 우는 것보다 닭알을 훔쳤다는 사실이 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더구나 지원군 아저씨한테 드릴 닭알이 깨졌기 때문에 더욱 서러웠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셔서 물었다.

《애 왜 우니? 닭알은 왜 깨치고?》

안 동길은 할머니 한테서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 매우 겁이 났으나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숨길 수도 없었다. 그래 울음 섞인 소리로 사실을 할머니 한테 말했다.

《할머니, 저 지원군 아저씨들이 우리 학교 운동장을 고생스럽게 닦아 주셨는데 그래 닭알 한 알 갔다 올리려구 하다가 깼어요. 한 알만 더 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안 동길은 이제는 할머니의 꾸중을 들을 참이라해서 막 목 노아 울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할머니는 조금도 성을 내지 않고 도리여 웃음을 띠우는 것이였다.

《애, 우질 말아 참 기특한 애다, 네 생각이 옳다. 한 알은 너무 적다. 남은 다섯 알을 다 가져 가거라》

안 동길은 할머니의 이 말씀에 눈이 뚱그래졌다.

《할머니 병아린 깨우지 않을래요?》

《안 깨우겠다. 이담 또 받아서 깨우지, 어서 지원군 아저씨 한테 가져다 드려라 그이들이 자셔주면 내 마음은 병아릴 깨우는 것보다 몇 갑절 기쁘겠다》

할머니는 집안으로 들어 가서 남은 닭알 다섯 알이 들어 있는 다래끼를 벗겨내다 손자에게 들려 주었다.

그러자 안 동길 소년은 할머니의 허리를 얼싸 안고 어쩔 줄을 몰라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닌 참 좋은 할머니》

이 소리에 할머니도 빙그레 웃었다.

그날로 온 학교 학생들은 너나할 것 없이 닭알을 다 가져 왔다. 4학년 1반 학생들은 자기 반에 있는 단 위원장 김 문영 한테로 모아 왔는데 그 닭알들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씌여 있었다. 이를테면 《영원한 친선》, 《지원군 아저씨들에게 드림》, 《지원군 만세!》 등등으로.

아침, 중대 전사들이 조기 체조를 하고 돌아 왔을 때였다. 김 문영을 비롯한 웬 소년들이 많이 몰려 와서 병사 주위를 청소도 해 주고 중대 채마 발에 물도 주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병실 문 앞에다 가는 큰 닭알 광주리 두개를 노아 두지 않았겠는가! 우리 지원군 전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그래 조선족인 2소대장을 데려다가 중국말로 번역해서 사실을 밝혀 달라고 청하였다.

단 위원장 김 문영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지원군 아저씨들! 전쟁 때에는 우리 인민 군대를 도와 악착한 미 제국주의자들을 쳐물려 주었고 전쟁이 끝나서는 또 우리 나라 건설을 직접 도와 주었으니 그 은혜는 영원히 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전교의 학생 교직원은 다해서 416명입니다. 매 사람 닭알 한알에다 자기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 정성이란 지원군 아저씨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붉디붉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닭알은 실지 416알이여야 할텐데 420 알입니다. 남은 네 알은 안 동길의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보내 주신 일에 대해서는 안 동길 동무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안 동길은 자신이 닭알을 《훔치》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것을 들은 전사들은 다같이 크게 감동되였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이 조선 소년 학생들과 《옹헤야》 춤을 함께 어울려 추기 시작하였다. 노래 소리는 온 산과 들에 울려 퍼졌다.

(백 준선 역)

《소년단》 통신원의 역할을 더 잘 하겠습니다

나는 잡지 《소년단》의 통신원이 됐어요.

이것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잡지 《소년단》 5월 호에서 《나의 로어 공부》라는 글을 읽고 김 월홍 동무처럼 공부하니 참 잘 되였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분단에서 나타나는 좋은 경험들을 편집부에 써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도움이 될게 아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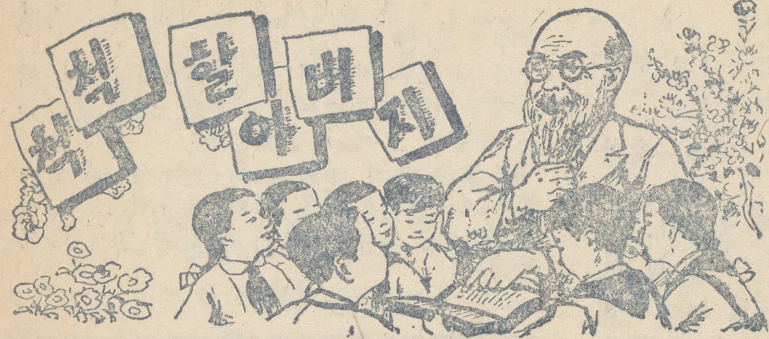
이런 마음이 생긴 나는 《성적은 좋아 진다》를 비롯한 22건의 원고를 《소년 신문》과 《소년단》잡지에 보냈습니다.

통신원이 되자면 우리 당 정책도 잘 알고 소년단 사업도 잘 알고 항상 학습과 생활에서도 소년단원들의 모범이 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년 신문》이나 《소년단》 잡지를 열심히 읽으며 분단 동무들과 재미 있게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나는 잡지 《소년단》의 통신원으로서 분단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철산 중학교 단
통신원 림 창 범

바늘을 만든다고 치자. 바늘을 만들 때에 전에는 쇠줄을 짜르고 끝을 뾰족하게 갈고 바늘 귀를 뚫는 일을 로동자 아저씨들이 손 도구를 들고 하나하나 갈고, 쓸고, 뚫고 했지만 지금은 기계를 써서 척척 하고 있지. 이것도 기계화이지.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오냐, 요새 공부들 잘 하느냐?

일동—예!

할아버지—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 달라느냐?

길남—저는 요사이 많이 이야기 하는 기계화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할아버지—옳지, 지난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토의된 기계화,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 말이지.

일동—예!

할아버지—기계화란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로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거지, 례를 들어 큰 집을 하나 짛는다고 하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지난 날에는 흙 파는 일은 삽과 괭이로, 또 벽돌, 세멘트, 모래, 자갈 등을 나르는 일은 등'짐으로 했는데 우리가 오늘 평양 건설이나 비날론 공장 건설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흙파는 일은 엑쓰까와또르를 써서 하고 그리고 벽돌, 브록크, 모래, 세멘트 등을 나르는 일은 기중기나 다른 기계를 써서 하고 있지, 이것이 기계화란다.

창수—그럼 그런 일만 기계화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아니지, 다른 일도 기계화할 수 있지. 가령 어느 지방 공업 공장에서 바늘을 만든다고 치자. 바늘을 만들 때에 전에는 쇠줄을 짜르고 끝을 뾰족하게 갈고 바늘 귀를 뚫는 일을 로동자 아저씨들이 손 도구를 들고 하나하나 갈고, 쓸고, 뚫고 했지만 지금은 기계를 써서 척척 하고 있지. 이것도 기계화이지.

애자—그럼 기계화란 땀을 흘리며 아주 힘들게 하던 일과 품이 많이 들던 일을 기계를 써서 아주 헐하게 또 품을 적게 들여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구만요.

할아버지—옳지! 그렇지 참 똑똑 한걸.

순자—그럼 농촌에서 품이 많이 드는 밭가는 일, 씨뿌리는 일, 김매는 일, 곡식을 거두는 일, 곡식이나 비료를 나르는 일을 기계화할 수는 없나요?

할아버지—암, 그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기 이번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도 농업의 기계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토의했지. 기계화를 해야 적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내고 또 2 모작도 할 수 있지.

영수—그럼 농촌의 일을 기계화 하자면 무슨 기계가 필요하나요.?

할아버지—암 그거야 많지. 먼저 뜨락또르, 자동차 그 다음엔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등이지.

지금 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려구 큰 놈은 기양에서 작은 놈은 강계에서 만들고 있지. 머지 않아 비탈진 땅도 갈 수 있는 뜨락또르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승리 58》형 화물 자동차는 덕천에서 만들고 있지. 듣노라니 너희들이 폐품을 모아 수매한 돈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사서 농촌에 보냈다드구나!

순자—할아버지 저는 방학 동안에 송림에 있는 아저씨한테 갔댔는데 황해 제철

소에서는 기계화를 해서 일본 놈들 때는 3,000 명이 나르던 광석을 지금은 100 명이 나른다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그렇지! 그래서 기계화가 안 된 곳에서는 기계화를하고 또 이미 기계화가 된 곳에서는 자동화를 해야지.

혜자—할아버지 그럼 자동화란 또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참 그것은 더 재미 있는 문제다.

례를 든다면 과실 통조림을 만들 때 과실이 들어가 통조림이 되여 포장이 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기계가 맡아서 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하지.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일 또는 몇 가지 일만을 기계가 맡아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자동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조림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고 보니 사람 대신 기계가 사람의 요구대로 일해주는거지.

혜자—그럼 로동자 아저씨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할아버지—로동자 아저씨들은 기계가 일을 잘하는가를 보살피고 고장이 생기면 그것을 고쳐 주는 일만하지.

혜자—그러면 마치 로동자들은 기계의 의사가 되는군만요.

할아버지—이를테면 그렇지.

길남—우리 나라에는 그런 공장이 있나요?

할아버지—있구말구, 2.8 마동 세멘트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장과 직장들이 자동화 되였지.

영수—그런 공장이 어떻게 돌아 가나요.

할아버지—옳지 이런 공장에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두뇌)와 같은 일을 하는 사령실이 있단다. 이 사령실에는 조종판이 병풍처럼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이 전체 공장이 잘 일하고 있는가를 보살피게 되지.

영수—그 숫한 기계 중에서 어느 기계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아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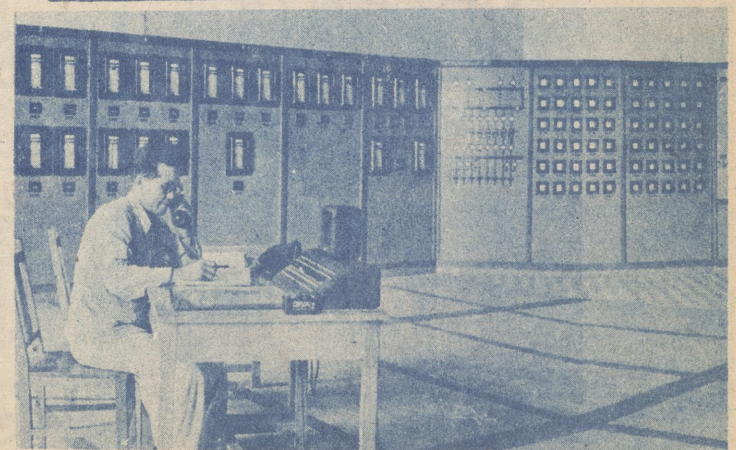
할아버지—그것은 사령실에 모든 기계의 신경이 다 와 있다. 그래서 조종판에는 매개 기계의 모형과 몇개의 색갈 전등이 있는데, 기계가 잘 돌아 가고 있을 때는 노랑불, 파랑불이 와 있고 기계가 멎으면 꺼진다.

또 기계가 돌다가 고장이 생기려 할때는 빨간 전등이 켜지면서 고동이 울리지. 그러면 앉아 있던 당직은 곧 대책을 세워 고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앞으로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이렇게 기계화를 끝내고 자동화를 해야 한다.

길남—모든 것이 자동화 되면 일하기가 더 신이 나겠구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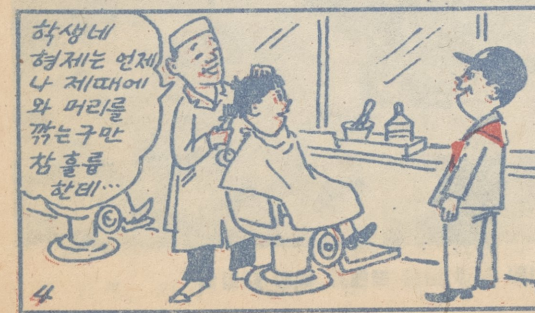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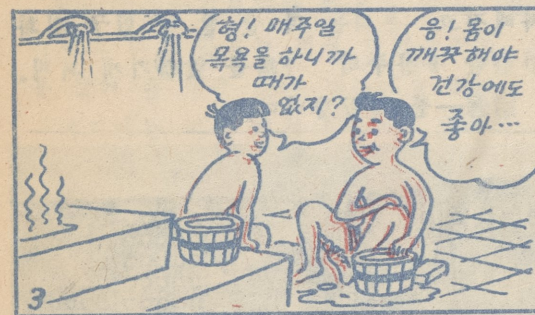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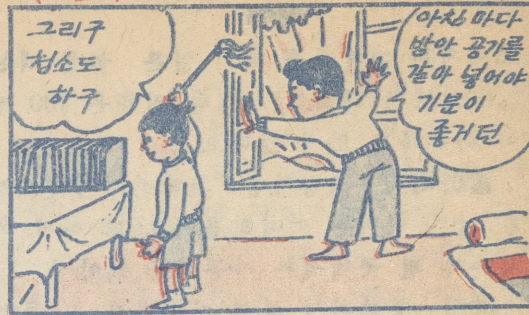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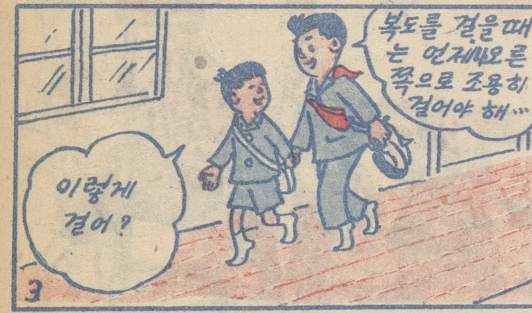
할아버지—그렇구 말구 일하기가 신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물건이 차례지고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구 휘황찬란한 공산주의 사회를 앞당기게 되지.

일동—잘 알았습니다.

자동화된 2·8 마동 세멘트 공장 사령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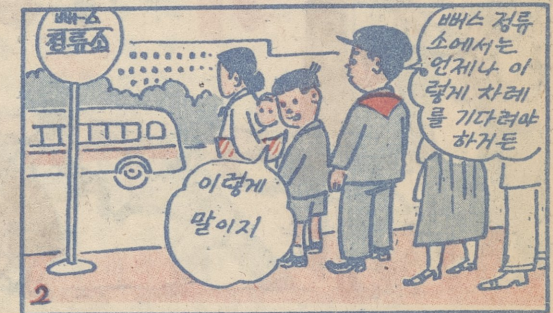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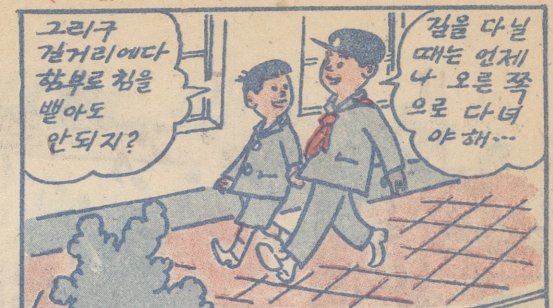
만화

순철이네 형제

원 광수 그림

(몸차림이 깨끗하고 단정하다)

(집과 마을을 꾸리는데도 모범)

(학교 위생에도 으뜸이지요)

(위생 근위대와 록화 근위대에서도 모범)

(공중 도덕에서도 모범)

동요

꽃다발을 흔들어 감사드리자

—조선 로동당 창건 15 주년을 맞으며—

동무들아 모여라!
꽃다발을 흔들어 감사드리자!
오늘은 자랑스런 우리 당의 생일날.
열다섯 해 그 기간 비록 짧지만
그 동안 베푸신 은혜는 태산 같아요.

공장에선 검은 연기 하늘을 덮고
들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요.
학교에선 우리들의 글 읽는 소리
랑랑하게 대지 우에 울려 퍼져요.
—아! 당은 고마워라!

동무들아 모여라 북을 두드려라!
우리에게 이 행복 안기여 주는
은혜로운 우리 당에 감사 드리자
어버이 우리 당에 맹세 드리자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강원도 원산시 철산 중학교 단
림 창 범

동요

행복한 우리집

하늘엔 반짝반짝
별들이 늘어 가고
협동 조합 마을엔
전등 불빛 느는데

오늘도 아빠 엄마
조합일 끝내고
코'노래도 흥겨웁게
논밭에서 돌아 와요.

협동 조합 우리 새집
유리창이 번득이고
공부하는 내 책상은
윤'기 나서 반득반득

유치원생 내 동생은
나비춤에 신 났는데
라디오도 흥겨워서
노래노래 불러대죠

새 살림 늘어 가는
우리 집은 행복해요.
이것은 모두모두
당과 수령님의 은덕이지요.

함남도 오로군 봉흥 중학교
최 교

작문

당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국놈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고아입니다. 그러나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나라에서는 의복이며, 음식이며, 잠자리, 학용품 무엇이건 부러울 것 없이 마련해 줍니다. 여름 방학이면 명승지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야영 생활까지 합니다.

우리는 학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기술까지 배우게 됩니다.

나는 남반부 소년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만약 남반부에 태여났드라면 어떻게 되였을가고 생각해 보군합니다.

이럴때마다 우리 당이 얼마나 고마우며 따뜻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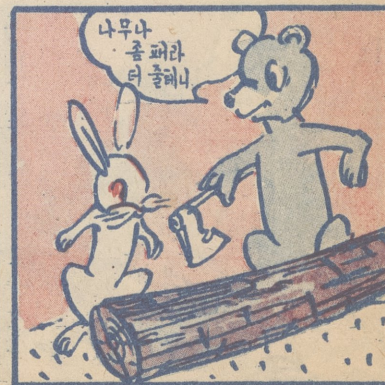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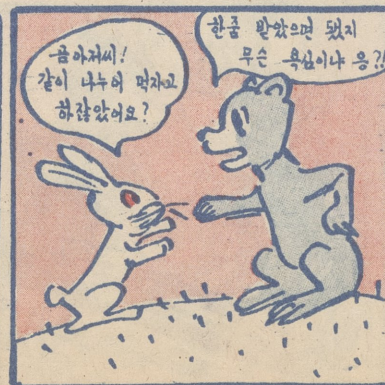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안이 아니였드라면 나는 거지가 되여 거리를 헤매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당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에 충실한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 모든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이 요구하는 앞날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준비하여 당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평남 남포 유자녀 학원
김 명 호

시를 어떻게 랑송할것인가?

리 호 일

시를 랑송하자면 먼저 랑송할 시를 골라야 한다.

시는 종류에 따라 크게 구분한다면 사람들의 아름다운 감정 세계를 노래한 서정시와 일정한 이야기와 사건을 가지고있는 서사시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서정시와 서사시의 특성을 잘 배합한 서정서사시도 있다.

이러한 시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더욱 세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소년단원들에게 랑송하기 좋은 것은 그 내용이 간결하고 알기 쉬우며 짧고 따로 외우기 쉬운 서정시들이다.

다음은 시의 주제에 따라 읊고 싶은 시를 골라야 한다.

혁명 전통에 관한 것, 조국 통일에 관한 것, 혹은 소년단 생활을 취급한 시등 그 주제에 의하여 가장 우수한 시를 골라야 한다.

시를 선택할 때에는 선생님들의 지도 밑에 집체적 (분단에서 토의하여)으로나 개별적으로 랑송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시를 고를 수 있다.

시를 고른 다음에는 랑송자는 그 시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고저 하였으며, 무슨 사상을 독자에게 알려 주자고 하였으며, 어느 대목에 중심을 두었는가를 리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랑송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알고 읊어야만 마음 속으로 감동되여 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를 물론하고 시를 보면 시인이 누구의 립장에서 누구의 감정으로 노래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점들을 잘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시인의 감정으로 시인이 노래하고저 하는 사상 감정을 듣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전달 할 수 있으며,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의 음률을 잘 알며 어떤데서 격조가 높아 졌으며, 어떤 데서 서정이 깊게 나타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 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읊는 태도도 달라져야 된다.

만약 격조 높은 시를 조용히 읊는다든가 서정이 깔아 앉은 시를 격조 높이 읊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시의 전반적 음조를 깨뜨리고 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인가, 혹은 시에 형상화된 사람들이 호상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을 잘 밝혀야 한다.

이렇게 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잘 알아 가지고 다음 직접 시 랑송 련습에 들어 가게된다.

시 랑송 련습을 할 때에는 그 시가 무엇을 말하려는 시인가, 즉 그 시의 사상 그리고 그 시의 형상성을 머리 속에 뚜렷이 아로 새기고 심장에 사무치도록 읽어야 한다.

이리하여 완전히 따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

외울 때까지는 억양을 붙이지 않고 소리를 내여 읽어야 한다.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상 감정을 알수 있으며 어느 대목에 가서 높고 낮게 또는 길고 짧게 해야 하겠는가가 똑똑히 떠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히 제것으로 만든 다음에 시에 억양을 붙여서 읊는 것이 좋다.

시를 읊을 때에 거저 소리를 치거나 높고 낮게 또는 길고 짧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인의 감정 세계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심장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그렇게되면 의례히 시 랑송은 자연스럽게 감동적으로 될것이며 시 내용에 따라 혹은 폭풍같이 혹은 맑은 시내'물 같이 읊조리게 될것이다.

그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랑송자의 음성, 랑송 방법의 특성을 잘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서정시를 랑송함에 있어서도 읊는 사람에 따라 숲속의 새처럼 노래할 수도 있고, 새벽에 넓은 들에 날으는 종달이처럼 노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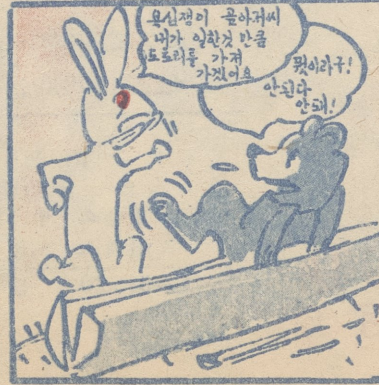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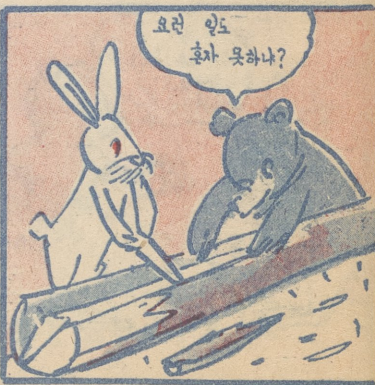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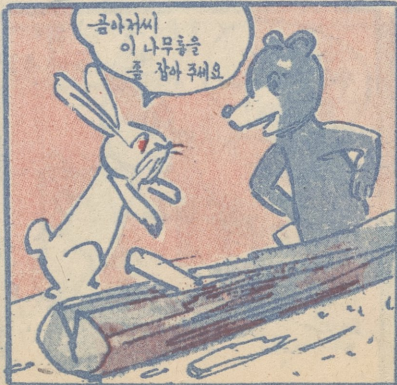
끝으로 주의할 것은 표정과 태도 문제이다. 소년들이 순진하고 천진 란만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귀염을 받듯이 시를 랑송함에 있어서도 꾸밈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얼굴 표정들은 두 눈에 온갖 정기를 모아 진실하게 읊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손질이나 몸 움직임이 없도록 하며 사람들이 잘 알아 듣도록 똑똑한 발음과 맑은 목소리로 읊어야 한다.

훌륭하게 준비된 시 랑송은 듣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랑송자 자신이 가장 훌륭한 소년단원이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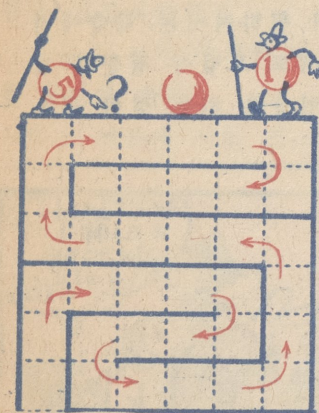
시 랑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습에서도, 소년단 사업에서도 모범이 될뿐만 아니라 꾸준히 랑송 련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을 어떻게 굴려다 놓을가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방형의 밑에 18개의 공이 놓여 있습니다. 매개 공에는 수'자가 기록되여 있습니다. 정방형은 3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방형 안에 표시되여 있는 화살들은 공이 굴러 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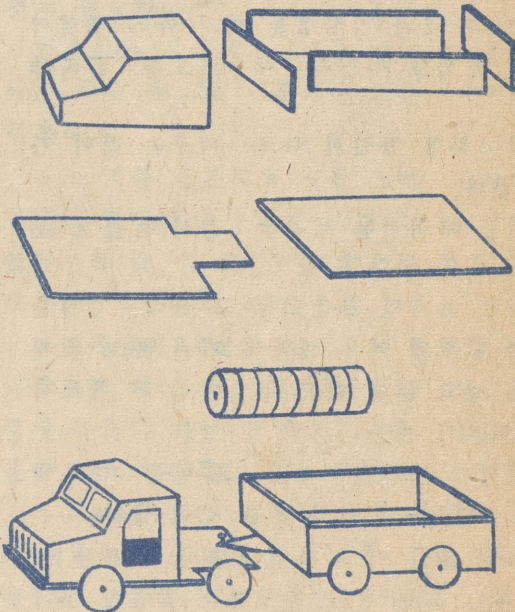
동무들은 이 18개의 공을 놓인 순번대로 굴려서 화살이 가리킨 길을 지나 길이 막히는 마지막 어느 한 임의의 칸 (36개로 나눈 것 중의 임의의 정방형)에서부터 18개 공을 임의로 놓으십시요.

그리하여 공을 놓은 결과 정방형의 매 세로의 합이 <10>이되고 또 매 가로의 합도 <10>이 되게금 하십시요.

공을 놓은 곳에는 다시 다른 공을 놓을 수 없으며 놓인 공의 순서는 처음 공이 놓인 순서와 같아야 합니다.

공작

만들어 보세요

《화물 자동차》 만들기

먼저 그림에서 화물 자동차의 다된 모양을 연구하고 나무 토막과 판자쪽으로 만들자. 적당한 치수로 균형이 잡히게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에 관계하지 말고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적당한 크기로 모양을 좋게 만들자.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10호 (총 132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520 값 25 전 150,000부 발행

토끼의 겨울 차비를 잘하자!

항상준비